

“코믹·힐링·미스터리 등 복합 매력 담겨 있어”

tvN 새 월화드라마 ‘조선 정신과의사 유세풍’ 박원국 PD 김민재·김향기·김상경 출연...“아픈 지닌 백성들의 정겨운 이야기”

조선시대에도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을까.

1일 밤 10시 30분 첫방송을 시작한 tvN 새 월화드라마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이 조선시대 정신과 의사라는 신선한 설정으로 시청자들을 찾는다.

연출을 맡은 박원국 PD는 최근 온라인 제작 발표회에서 “많은 사람이 겪는 아픔, 고통, 어려움을 어떻게 위로하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드라마”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이어 “따뜻한 위로와 감동, 힐링이 있고, 여기에 코믹과 미스터리, 스릴러, 추리, 멜로 등 여러 복합적인 매력이 듬뿍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은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잘 나가던 내의원 의관 유세풍(김민재 분)이 궁중 음모에 휘말려 쫓겨나 이상하고 아름다운 계수마을에 내려가게 된 이야기를 그린다.

유세풍은 이곳에서 괴짜의원 계지한(김상경)과 반전 매력의 과부 서은우(김향기)를 만나 진정한 의사로 거듭나게 된다.

박 PD는 “조선시대에도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아픔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았을까를 그려낸 따뜻한 작품”이라며 “원작 소설에 담긴 재미와 감동을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극들이 주로 왕이나, 양반들, 고위

공직자 이야기를 다뤘다면,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은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계수마을을 배경으로 한다”며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정겨운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사극”이라고 덧붙였다.

내의원 수석 침의로 출세 가도를 달리다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침을 놓지 못하게 된 유세풍 역은 배우 김민재가 맡았다.

김민재는 “조선 정신과 의사라는 제목만으로도 작품에 대한 궁금증이 컸고, 대본을 읽는데 어느새 울고, 웃고 싶은 감정이 생겼다”고 출연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유세풍은 실력도 뛰어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도덕적 인물”이라며 “억지스럽지 않은 위로를 건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마음 아픈 이들의 사연을 추리하는 과부 서은우로 분한 김향기와 괴팍한 성격 뒤에 따스함을 숨긴 괴짜의원 계지한을 연기한 김상경 역시 유쾌한 속에서 감동을 선사할 작품이라고 드라마를 소개했다.

김향기는 “드라마에 다양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주인공들끼리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인물들이 모두 잘 보인다”며 “그 안에 활기차고 재밌는 장면들도 많다”고 말했다.

김상경은 “세종대왕 역만 두 번을 했는데, 사실 품 잡는 인물을 안 좋아한다”며 “계지한은 술도 많이 마시고 괴팍한 사람인데 까만 갈수룩 양파 같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출연진 김민재, 김향기, 김상경(왼쪽부터).

은 매력이 있다. 그 매력을 끝까지 봐달라”고 당부했다.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은 시즌제로 방영될 예정이다.

박 PD는 “드라마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야기여서 시즌제로 만들기 적합했다”며 “매년 새로운 환자의 새로운 아픔이 드러나고, 이를 치유

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며 “시청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을 저희 드라마에서 조금이라도 찾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조 2: 인터내셔널 스틸컷

현빈·유해진 코믹수사극

‘공조 2’ 다음달 개봉

현빈·유해진 주연의 코믹수사극 ‘공조 2: 인터내셔널’이 다음달 개봉한다고 배급사 CJ ENM이 1일 전했다.

‘공조 2’는 북한 형사 립철령(현빈)과 남한 형사 강진태(유해진)가 비공식 합동 수사를 벌인 ‘공조’의 속편이다. 2017년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개봉한 ‘공조’는 관객 781만 명을 동원했다.

‘공조 2’는 추석 연휴 기간 관객을 맞을 예정이다.

속편에서는 다니엘 헤니가 FBI(미 연방수사국) 요원 잭 역할로 합류해 삼각공조를 벌인다. 진선규가 범죄조직 리더 장명준 역을 맡았다. 립철령을 흡모하는 강진태의 처제 민영 역으로 임윤아가 계속 출연한다. /연합뉴스

김희선, 19년만에 총무로 복귀

‘달짝지근해’ 캐스팅



배우 김희선(사진)이 19년 만에 총무로 복귀한다.

배급사 마인드마크는 김희선과 유해진 등이 출연하는 ‘달짝지근해’ 캐스팅을 마치고 최근 촬영에 들어갔다고 1일 전했다.

김희선은 2000년대 초반 영화 ‘비천무’와 ‘와니와 준하’ 등에 출연하고 ‘성룡의 신화’ (2005)로 중화권 무대에 진출했다. 한국영화 출연작은 ‘화성으로 간 사나이’ (2003)가 마지막이다.

‘달짝지근해’는 중독적인 맛을 개발해온 제과회사 연구원 치호(유해진 분)가 대출심사업체 폴센터 직원 일영(김희선)을 만나면서 겪는 변화를 그린 영화다.

‘극한직업’의 이병헌 감독이 각본을 쓰고, ‘중인’을 연출한 이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영화는 내년 개봉 예정이다. /연합뉴스

드라마 주인공 된 ‘개미들’...주식 소재 작품 속속 등장

‘개미가 타고...’ ‘스톡 오브...’ 등 “관련내용 다루는 콘텐츠 더 늘 것”

갈수록 뜨거워지는 재테크 열풍 속에 주식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예능을 넘어 드라마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양극화 현상과 취업난 등 고용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반영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방송계에 따르면 최근 주식을 소재로 내세운 드라마들이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오는 12일 처음 공개되는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개미가 타고 있어요’는 다섯 명의 개미가 주식을 통해 인생을 깨닫는 휴먼 코미디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예비 신부, 족발집 사장, 영어 교사, 돈이 모일 때까지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프리터족’ 등 나이와 직업, 종횡무진 모두 각양각색인 다섯 명의 개미가 크고 작은 실패를 겪으며 자신의 투자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매회 에필로그에는 구독자 228만 명의 지식 경제 유튜브 슈가가 등장해 주식 특강을 한다.

지난 24일 종영한 JTBC 주말드라마 ‘클리닝



업’도 주식 전쟁에 뛰어든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증권사 미화원으로 일하는 어용미(염정아 분)는 회사에서 우연히 내부자 거래 정보를 엿듣게

된다. 대화에서 언급된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보고 본격적으로 주식 공부를 시작한다.

‘클리닝 업’에는 내부자 정보 거래, 공매도, 기업 평가서, 작전주 등 생소한 경제 용어가 등장하

지만, 주식을 모르는 시청자들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설명했다는 평을 받는다.

주식 그래프에 따라 희로애락을 오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보는 재미를 높였다. 어용미와 안인경(전소민)이 주식 매도 시점을 고민하는 장면 등은 공감을 자아냈고, 주가가 3배를 훌쩍 뛰어 화호성을 지르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대리 만족을 안기기도 했다.

지난 22일 공개된 tvN 드라마 프로젝트 ‘오픈닝(O’PENing)’의 ‘스톡 오브 하이스쿨’은 주식에 도전하는 10대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공부 잘하는 흡수저 고등학교 생 안형인(이레)은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친구들을 대리해서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주는 일을 시작한다. 세뱃돈까지 털어가며 주식에 뛰어든 고등학생들의 모습을 비추며 불안한 미래에 갈똥하는 10대들의 현실을 짚어냈다는 평을 받는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주식은 아직 많은 사람에게 ‘미지의 세계’이면서도 다들 한 번쯤은 접해본 소재”라며 “주식을 소재로 한 이야기는 낯설면서도 익숙해야 한다는 대중문화 콘텐츠 성공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에 대한 보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재밌고 흥미롭게 풀어내는 콘텐츠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문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